

보도시점 2026. 6. 29. (월) 배포 2026. 6. 29.(월)
행사 시작(14:00) 이후

지역이 함께 막는다,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 양천구서 개최

- 정은경 장관, ‘지역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 참석해 자살예방 담당자 격려 및 지역 맞춤형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6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양천구청에서 「양천구 지역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살 사건은 지역사회 내 트라우마 및 연쇄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양천구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이기재 양천구청장,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김요한 양천구 보건소장, 원희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30여 개 기관에서 6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참석 기관들은 지역 자살예방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수행할 자살예방 활동을 정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관별 수행 활동을 모두 취합해 지역 공동 자살예방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 (수행 활동 예시) ▲정신건강 교육·참여형 캠페인·홍보자료 배포 등 주민 인식 제고, ▲자살 위험지역 순찰 및 위험 도구 유통·판매 모니터링 등 자살 수단 접근 차단,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하여 전문 기관에 연결하는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 ▲취약 대상 선별검사·집중관리 등

이번 정은경 장관의 방문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업무 상황을 직접 살피도록 당부한 데 따른 것으로, 일선 지역의 자살예방 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자살예방 사업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자살예방 대응계획 수립 과정에 함께 참여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 자살예방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해 수립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지역 자살예방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를 2025년 7월부터 종전 월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 중이다. 이후 약 1년간 총 48개 시·군·구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총 1,086개 기관·단체 대표 1,942명이 참석하였고, 총 566개의 세부 대응계획이 수립되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역 현황 분석과 계획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동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한 시·군·구(’25년 5월~’26년 1월까지 회의를 개최한 28곳)를 대상으로 대응계획 수립 이전과 계획 수립·이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의 지역별 월간 자살 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분석한 결과, 대응 이전 평균 약 11.5명에서 계획 이행 3개월 후 약 5.8명으로 약 4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월 2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6년 4월 자살사망자수는 1,061명(잠정치)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살사망자수는 2025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6년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0.9%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목표 아래, 이 같은 자살사망자 감소 추이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간 국가 자살예방 총괄 조정 기구(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했고,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 부단체장(총 243개)을 자살예방관(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보건소 중심에서 복지·고용·보건을 포괄하는 전담조직 중심의 대응체계(신규 전담 공무원 293명 배치완료)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상담인력을 연내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응대율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관리 시스템도 연내 개발·도입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적 수준의 고위험군 대응 및 지원 상황관리, 신속한 위기 개입 및 사망자 분석, 안정된 일시보호체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자살은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교육·경찰 등 지역사회 모두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대응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지금의 자살사망자 감소 추이가 더 공고화되고, 강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으며, 지역사회가 자살예방의 최전선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 언론 협조 요청 사항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우 (044-202-3890)
		담당자	사무관	곽도현 (044-202-3893)
협력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관리사업부	책임자	부 장	조인선 (02-3706-0550)
		담당자	사후대응팀장	권희연 (02-3706-0561)



붙임 1**간담회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9일(월), 14:00~15:30
- (장소) 양천구청 3층 디지털미디어센터
- (내용) 지역사회 자살 사후대응의 필요성 공유 및 지역사회 관계 기관(단체) 참여를 통한 공동 대응계획 논의
-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양천구청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 양천구 보건소장,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담당
14:00-14:10 (10분)	· 참석 기관 소개	
14:10-14:30 (20분)	《1부》 · 지역사회 사후대응 필요성-최근 현황(10) · 지역사회 사후대응 계획 안내(10)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14:30-15:20 (50분)	《2부》 · 관계 기관(단체) 토론-조별토론 · 공동 대응계획 도출	
15:20-15:25 (5분)	최종 공동 대응계획 안내 및 소감 나눔	
15:25-15:30 (5분)	공동 대응계획 참여 선언	양천구
15:30-	향후 계획 안내 및 폐회 선언	

1.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일환으로 자살 사건 보도 과정에서, 긴급도움 요청과 관련하여 삽입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고 각 언론사 내부에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내 문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

2. 참고로 2024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기존 1393, 1577-0199, 1388 등에서 “109”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 SNS 기반의 자살예방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이 개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QR코드를 통해 종이 없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으로 연결되며, PDF 형식의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